

◆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1. 메가뱅크의 필요성 논란

90년대 말부터 제기된 대형은행의 필요성 논란이 최근 해외 대형플랜트 건설 수주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제기되었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대형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임.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경제규모 대비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은행들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세계 100대 은행 평균과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은 자산규모가 비슷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사업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를 보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해외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비해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은 은행의 양적인 규모보다는 수익성과 성장가능성 등 질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한 성과 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함.

■ 90년대 말부터 제기된 대형은행의 필요성은 2011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구체화된 바 있음.

- IMF 외환위기 발생 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33개 은행 중 10개가 정리되었고 이후 대우사태와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은행 대형화가 추진되었음.
 - 한빛, 평화, 경남, 광주, 한아름 중금을 합병한 우리금융그룹(2001. 4),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한 KB금융(2001. 11),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한 하나금융(2002. 12), 신한·조흥·제주은행을 합병한 신한금융그룹(2003. 6)이 설립되었음.¹⁾
-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자산규모는 2010년 말 기준 예금은행 1,717.7조 원, 생명보험 408.5조 원, 손해보험 99.0조 원, 증권 200.0조 원 등으로 은행 편중 현상이 심화됨.

1) 박덕배(2011. 6. 3), 「국내 메가뱅크 육성과 은행산업의 방향」,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국회 공청회 자료.

○ 2011년 5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는 “메가뱅크” 설립을 모색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추진이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 4를 개정하여 공적자금 및 정부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에 한해 지분취득 요건을 50%까지 완화하여 기존처럼 지분을 100%까지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²⁾

-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지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했음.³⁾

■ 우리금융그룹과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추진 배경은 해외 대형 플랜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임.

○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으로부터 원전사업을 수주(186억 달러 규모)할 당시 국내 금융기관의 사업자금 지급보증 조건 이행 여부가 수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고, 2011년 터키 원전사업(220억 달러 규모) 수주 실패 원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이 논란이 되었음.⁴⁾

○ 대형 플랜트 건설 사업형태가 전환되면서 수주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해짐.

-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발주하는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선호함.

- 터키 원전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은행의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는데 일본 은행들의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임.⁵⁾

2) 박덕배(2011. 6. 3), 「국내 메가뱅크 육성과 은행산업의 방향」,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국회 공청회 자료.

3)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매일경제 사설(2013. 5. 5)은,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는 자산규모 50위 이내의 대형은행 보증서를 받아오라는 요구에 영국 SC은행에 수수료를 주며 손을 벌린 뒤 국내 금융회사 대형화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라고 기술하며, 대형원전 수주와 금융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음. 특히 터키 원전 수주의 경우 터키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보증 없이 사업자가 자체 재원을 조달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은 5.3% 조달금리를 제시했지만, 일본은 경쟁국에 비해 1~2%p 낮은 조달 금리를 제시했다고 함.

5) 일본의 4대 대형은행들의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시장 리그테이블 순위는 2003년 이후 10위권을 유지

○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 주간 은행(Book runner)의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자금을 조달하는 것임.

■ 경제규모 세계 15위에 부합하는 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GDP기준 경제규모 15위)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스웨덴(GDP기준 44위, 총자산 8,937억 달러의 노르디아은행)의 경우 세계 50대 은행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 50대 은행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100대 은행에는 우리나라 6개 은행들이 포함됨.

○ GDP규모 20위권 국가 가운데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이 없는 국가들로는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임.

■ 본 연구에서는 경제규모와 대형은행의 국가별 분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과 해외사업 비중을 해외 은행들과 비교하여, 수익성 관점에서 대형은행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고자 함.

○ 영국의 뱅커지(The Banker)가 선정한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 경제규모와 자산규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우리나라 은행들과 자산규모가 비슷한 해외 은행들, 그리고 미국 상업은행과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수익성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외사업비중과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하고 있음.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2011년 신디케이트론 금액은 전년 대비 232% 급증한 1,48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미쓰비시 UFJ는 1,3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음.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도 지난해 1,00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여 2010년 대비 229% 증가율을 보였음.

2. 경제규모와 은행의 규모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자산규모 합계와 해당 은행의 국가 경제규모를 비교한 결과, 세계 100대 은행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평균 1.41배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1.38배로 나타났음. 국가별 자산규모 1위인 대형은행의 자산비중을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자산규모 1위 은행의 자산비중은 미국 자산규모 1위인 대형은행의 GDP대비 자산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뱅커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을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영미권 55개(미국 16개, EU 35개, 호주 4개), 아시아 국가 22개(중국 13개, 일본 7개, 싱가포르 2개)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은행들의 순위는 기본자본 기준으로 KB금융지주가 68위, 자산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가 79위를 기록하였음.

– 기본자본(Tier 1 Capital) 기준으로 2013년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은행들은 KB지주, 산은지주,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농협지주이며 이들의 자산총계는 1조 5천억 달러 수준임.

– 이 중 신규 편입된 하나지주를 제외한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 증가율은 2012년 기준 16.3% 수준임.

■ 우리나라 6개 대형은행들의 총자산 규모는 GDP대비 1.38배로 세계 100대 은행 평균 1.41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자산총계의 국가별 GDP대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호주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EU의 역내통합과 유럽 은행들의 지역 내 사업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럽 은행들의 경우 유니버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자산과 보험자산, 증권업 관련 자산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⁶⁾

6) 프랑스의 BNP Paribas, Credit Agricole, Societe General, 영국의 RBS, 로이드뱅크그룹, HSBC 등은 보험사업을 병행하는 금융그룹이며, 스위스의 UBS, Credit Suisse 등은 투자은행을 겸업하는 금융그룹임.

○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GDP대비 대형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각국 자산규모 1위 은행의 GDP대비 자산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0.23배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유사하고 미국의 0.15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본자본 기준 68위인 KB지주의 GDP대비 자산비중은 0.20배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산규모는 GDP의 0.23배임.

○ 미국 최대 은행인 JPMorganChase의 GDP대비 자산규모 비중은 0.15배이고 EU 지역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자산규모는 EU GDP의 0.16배, 독일 GDP의 0.77배 수준임.

■ GDP대비 자산비중이 최소 0.24배(러시아)에서 최대 3.77배(스위스)까지 분포하는 원인은 해외사업 비중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미국 은행 중 세계 50대 은행에 포함된 은행 중 JPMorganChase와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2010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각각 22%, 17%의 수익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음.

○ 영국 HSBC의 경우 해외 시장 영업이익 비중이 2010년 78% 수준이며, RBS의 경우도 약 40%를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음. 일본 미쓰비시UFJ의 경우 매출액의 31%를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BNP파리바의 경우 해외자산 비중이 53.5%,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UniCredit의 경우도 해외자산 비중이 58.7%에 이름.⁷⁾

－ 미국, 영국과 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동질성으로 지역 다각화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스위스의 경우 UBS와 크레딧스위스는 투자은행 사업비중이 크지만 UBS은행의 해외사업 비중은 2009년 자산기준으로 73.7%이며 크레딧스위스 자산관리사업의 해외사업 비중은 86%에 이름.

○ 반면 중국 공상은행(ICBC)의 경우 2013년 해외자산 규모는 총자산의 6%인 1,697억 달러로 우리나라 대형은행 총자산의 11% 수준이고,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자산비중은 2013년 상반기 기준 4.3%에 불과하나 자산비중은 GDP대비 1.38배임.

7) 산은경제연구소(2009), 『세계 5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현황 및 시사점』.

<표 1> 세계 51~100위 은행의 국가별 분포와 GDP대비 자산비중

(단위: 십억 달러, 배)

	국가별 은행 수	은행의 자산총계(A)	국가별 1위 은행자산(B)	국가별 GDP(C)	GDP대비 자산총계 비중 (A/C)	GDP대비 국가별 1위 은행 자산 비중 (B/C)
중국	13	13,379.9	2,798.9	8,221.0	1.63	0.34
미국	16	11,947.4	2,359.1	16,244.6	0.74	0.15
EU	35	25,918.8	2,516.2	16,673.0	1.55	0.15 ¹⁾
영국	6	9,521.9	2,692.5	2,476.7	3.84	1.09
프랑스	5	9,180.6	2,516.2	2,613.9	3.51	0.96
독일	5	4,853.0	2,654.8	3,429.5	1.42	0.77
스페인	4	3,183.8	1,675.0	1,323.5	2.41	1.27
네덜란드	3	2,618.9	1,106.0	770.9	3.40	1.43
이탈리아	2	2,111.2	1,222.7	2,014.1	1.05	0.61
스웨덴	4	1,921.9	893.7	523.8	3.67	1.71
벨기에	2	810.2	338.9	483.9	1.67	0.70
덴마크	1	615.9	615.9	314.9	1.96	1.96
오스트리아	2	461.7	282.1	394.9	1.17	0.71
아일랜드	1	161.6	161.6	210.9	0.77	0.77
일본	7	8,763.2	2,709.4	5,960.3	1.47	0.45
캐나다	6	3,423.7	825.8	1,821.4	1.88	0.45
호주	4	2,910.9	793.8	1,541.7	1.89	0.51
스위스	2	2,381.1	1,007.9	631.2	3.77	1.60
브라질	4	1,788.6	555.0	2,253.1	0.79	0.25
한국	6	1,561.3	263.4	1,129.5	1.38	0.23 ²⁾
러시아	2	741.2	497.1	2,029.8	0.37	0.24
싱가포르	2	495.0	288.4	276.5	1.79	1.04
노르웨이	1	406.6	406.6	499.6	0.81	0.81
인도	1	389.4	389.4	1,841.7	0.21	0.21
말레이시아	1	161.8	161.8	304.7	0.53	0.53
합계	100	83,790.8	-	57,312.1	1.41	-

주: 1) EU의 경제통합을 고려한 EU역내 자산기준 최대은행의 GDP대비 자산비중임.

2) 자산규모가 가장 큰 우리금융지주의 자산규모를 사용함.

3) GDP대비 자산총계 비중의 평균임.

자료: The Banker(2013), IMF.

■ 세계 100대 은행들의 경영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었던 호주와 중국, 캐나다 은행들의 자산이익률(ROA)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은행들의 ROA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스위스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UBS, Credit Suisse 등이 포함되어 있어 ROA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출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은행들의 경우 부실채권비율(Non Performing Loan)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2> Banker 선정 1~100위 은행의 규모와 수익성¹⁾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은행 수	평균자산	대출비중	ROA	부실대출비율
중국	13	1,029.23	53.33	1.51	0.82
미국	16	746.71	46.76	1.33	2.50
영국	6	1,586.98	46.09	0.25	4.68
프랑스	5	1,836.11	46.80	0.29	3.77
독일	5	970.60	44.47	0.17	2.67
스페인	4	795.95	67.17	-0.40	6.81
네덜란드	3	872.98	73.87	0.36	2.50
이탈리아	2	1,055.61	60.19	0.19	7.22
스웨덴	4	480.47	61.67	0.73	-1.73
벨기에	2	405.08	55.08	-0.23	3.10
덴마크	1	615.87	54.36	0.25	4.00
오스트리아	2	230.84	63.01	0.57	9.50
아일랜드	1	161.63	74.73	-3.13	20.70
일본	7	1,251.88	5.53	0.51	-6.94
캐나다	6	570.61	55.53	1.06	0.74
호주	4	727.73	72.62	1.19	1.15
스위스	2	1,190.57	25.14	0.05	0.82
브라질	4	447.14	51.40	1.48	2.87
한국	6	260.21	64.24	0.68	1.46
러시아	2	370.61	75.42	2.27	4.30
싱가포르	2	247.52	68.43	1.32	1.35
노르웨이	1	406.62	58.90	0.78	2.18
인도	1	389.43	65.28	1.30	2.10
말레이시아	1	161.83	64.22	1.60	1.78
합계/평균	100	700.51	56.43	0.59	3.26

주: 1) 부실대출비율은 대출 잔액 대비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 NPL)비율임.
 자료: The Banker(2013).

3.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해외사업 비중 비교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을 2013년 뱅커지 선정 자산순위 70위권에서 120위권 은행들과 비교해보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스웨덴 은행들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와 사업구조가 우리나라 은행들과 유사한 미국 중형은행그룹에 비해서도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해외사업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뱅커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우리나라 은행들과 자산규모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은행들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스웨덴 은행의 평균 ROA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ROA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⁸⁾

○ 자산규모, 총자산대비 대출비중도 유사한 싱가포르 은행들의 자산이익률이 1.36%로 우리나라 은행들 0.63%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싱가포르 United Overseas Bank의 해외사업 비중은 순이익 대비 32.8%이며 DBS의 경우 싱가포르 지역의 순이익 비중은 62%이며 홍콩,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나머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은행들의 경우 대출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낮지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은행들의 대출비중은 50% 수준이고 평균 해외자산도 총자산 대비 17% 수준임 (<표 4> 참조).

– 캐나다 은행 가운데 89위인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자산규모 3,937.4억 달러)와 94위인 Desjardin Bank(자산규모 1,976.9억 달러)의 경우 해외사업 비중이 미미하나 2012년 ROA는 각각 1.03과 1.06을 기록함.⁹⁾

8) 자산규모 71위부터 120위까지 32개 해외 은행들과 ROA를 비교하였음. 자산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금융그룹 3,197억 달러로 자산기준 76위, 가장 작은 은행은 KDB금융그룹으로 1,792억 달러로 자산기준 111위임. 사업구조는 총자산대비 대출비중으로 비교하였음.

9) 캐나다 은행 가운데 56위인 Bank of Montreal(자산규모 5,259억 달러)의 ROA는 0.98%인데 미국 중심의 해외사업비중은 2013년 순이익 대비 15% 수준이며, ROA 0.98%인 51위인 Toronto Dominion Bank(자산규모 8118.4억 달러)의 경우 2013년 순이익 대비 22.9%의 미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

-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스웨덴의 Swedbank는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외시장의 경우 동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수익의 15%를 창출하고 있음.

<표 3> 자산규모 71~120위 국가별 은행의 규모와 수익성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은행 수	평균자산	대출비중	ROA	부실대출비율
미국	7	254.3	50.2	1.26	1.87
스위스	2	173.8	76.4	0.43	0.25
이탈리아	3	212.5	73.3	-0.75	8.00
독일	3	244.3	63.8	0.05	4.90
중국	4	210.6	55.0	1.36	0.94
벨기에	2	309.9	61.5	0.33	5.30
오스트리아	2	230.8	63.0	0.57	9.50
캐나다	2	187.9	57.7	1.08	0.65
싱가포르	2	247.5	68.4	1.32	1.35
스페인	2	210.5	72.9	-1.21	9.16
한국	7	249.4	63.4	0.69	1.45
스웨덴	1	283.9	68.7	1.00	n.a.
합계/평균	37	234.6	64.5	0.52	3.94

주: 자산규모 71~120위권 은행 중 우리나라 은행들과 자산규모가 유사한 은행 30개와 비교함.

■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해외사업비중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총자산대비 부실대출비율은 9.16%, 8.00%로 마이너스 ROA를 기록하였으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각각 5.30%와 9.50%의 부실대출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함.¹⁰⁾

럽지역에서도 기업금융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0) 독일의 Norddeutsche Landesbank, Helaba Bank, HSH Nordbank 등은 항공기, 선박 등과 관련된 기업고객에 대한 대출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과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 스페인의 Caixabank는 동유럽, 중국, 북아프리카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지 고객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Banco Popular Espanol와 Banco Sabadel 등의 해외사업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오스트리아의 Erste Group의 경우 해외사업비중은 2013년 순이자수익 기준으로 51%, RBI 그룹의 경우 자산기준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음.
-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은행을 비교할 경우 해외사업비중의 차이가 수익성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은행들의 자산이익률(ROA)과 예대마진(Net Interest Margin)을 비교한 결과 자산규모가 작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 국내 대형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¹¹⁾

- 국내 대형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평균 2.27%인데 비해 미국 은행그룹의 경우 중형은행 3.81%, 대형은행 3.24%로 나타남.
 - 순이자마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각국의 금리차, 시장경쟁구조,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등이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 6대 은행들의 ROA는 평균 0.68%로 미국 대형은행 평균 0.99%, 중형은행 1.0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ROE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 평균은 10.3%로 미국 대형은행 8.8%, 중형은행 8.6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1) 미국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한 상업은행 중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이하 대형은행, 89개) 은행과 자산규모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이하 중형은행, 446개)이 비교 대상임. 2012년 말 기준으로 89개 미국 대형은행의 총자산은 11.04조 달러이며 446개 미국 중형은행의 총자산은 1조 1,638.7억 달러로 국내 6대 은행의 총자산 1조 521.9억 달러와 근사한 수준임. 총자산대비 대출비중이 61.5%로 국내 은행 65.8%와 유사하고 해외사업 비중이 0.2%로 국내 은행 4.3%보다 적어 예대마진을 비교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임. 국가별 은행산업 총자산 비중으로는 미국 대형은행 그룹이 80.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6개 대형은행이 6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국내 은행과 미국 상업은행의 자산, 부채, 수익성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미국 중형은행	미국 대형은행	국내 6개 은행지주
	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	6개 금융그룹
은행 수	446	89	6
자산	1,168.4	11,045.6	1,521.9
산업 비중	(10.1%) ¹⁾	(80.2%)	(66.1%)
대출	720.4 (61.7%)	5,468.1 (49.5%)	1,001.4 (65.8%)
유가증권	255.6 (21.8%)	2,225.6 (20.1%)	313.6 (20.6%)
해외 자산	2.3 (0.19%)	1,875.2 (17.0%)	654 ²⁾ (4.3%)
부채	1,030.9	9,806.8	1,392.2
예금	914.4 (83.8%)	8,105.8 (82.6%)	865.3 (62.2%)
자본	137.5	1,238.8	129.7
Tier 1	115.8 (9.9%)	917.4 (8.3%)	105.2 (8.5%)
RoE	8.80%	8.64%	10.3%
RoA	1.02%	0.99%	0.68%
NIM	3.81%	3.24%	2.27%

주: 1) 2012년 말 기준이며 괄호는 총자산 대비 비중을 나타냄.

2) 국내 6대 은행의 해외자산은 국내은행 은행계정 총자산의 4.3%를 적용한 금액임.

자료: FDIC, 금융감독원.

■ 수익비중에서도 미국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¹²⁾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34%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21.3%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³⁾
-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535개 상업은행의 2012년 기준 비이자수익 비중은 35%에 이르고 미국 전체 상업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 19.7% 수준임.

12) 비이자수익 비중은 총수익(비이자수익과 이자수익의 합) 대비 비이자수익 비중으로 계산되었음.

13) 국내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BOK이슈리뷰(2013. 4~4)에서 재인용함.

- 미국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은 트레이딩 손익 및 수수료, 예금계좌유지 서비스, 신탁(Fiduciary Activity) 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형은행들은 트레이딩 관련 수수료 비중이 높고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계좌유지 서비스 수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대형은행들이 신수익원 확보를 위해 이자율 스왑, 외환 선물/선도 시장 등 파생상품 트레이딩에 참여하면서 비이자수입 구성이 다양화되었음.

- 2012년 비이자수입 대비 트레이딩 관련 수수료 비중이 8.2% 수준임.¹⁴⁾

<표 5> 미국 상업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미국 상업은행	미국 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은행
은행 수(개)	6,096	535
이자수익	444.9	397.4
이자비용	57.2	49.5
비이자수익	227.4	215.8
신탁	27.5	26.4
예금계좌 유지	32.5	29.6
트레이딩 관련	17.9	17.8
기타 비이자수익	149.5	141.9
비이자수익 비중	34%	35%
비이자비용	388.5	352.1

자료: FDIC.

■ IMF위기 이후 인수·합병으로 자산규모 측면에서는 대형화되었으나 수익창출 측면의 핵심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수익률(ROA), 예대마진(NIM)도 낮고 비이자수익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미국 은행산업의 경우 투자은행사업 분리, 이자율 규제,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됨.

14) 미국 상업은행의 트레이딩 관련 비이자수입 비중은 80년대 후반 20% 수준이었고 90년대 초반에는 25%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음.

4. 국내 은행의 규모와 수익성 비교 결과

국내 은행의 자산규모는 GDP대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은 해외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비중도 중국 은행들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 예대마진, 자산이익률이 낮다는 점은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등 핵심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핵심역량이 취약한 원인은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반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왔고 지역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대해왔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대형은행들은 은행업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조달-운용 수익, 수익원 다변화 측면에서 해외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사업비중이 낮아 향후 성장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가. 핵심역량 부재와 낮은 수익성

■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전과는 달리 금융산업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용이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역량 개발은 뒤쳐졌음.

- 경제개발계획 시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역할은 정부가 들여온 차관을 정해진 금리에 따라 기업에게 배분하는 역할이었음.
- 80년대 후반 금리자유화가 시작되며 금융산업 발전에 관심이 확대되긴 했으나 90년대 후반 IMF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들의 구조조정으로 핵심역량 강화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력, 디자인 역량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음.¹⁵⁾

- 설립 이후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였음.
 - 반도체의 경우 1994년 8월 세계최초로 256메가 D램, 이후 1996년 10월 1기가 D램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169건의 특허를 국내 외에 출원하였음.
 - 휴대폰의 경우 95년 10월 디지털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국내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확대하였고 96년 9월에는 미국 스프린트사에 6억 달러 규모의 CDMA를 수출하였음.
 - 디스플레이의 경우 88년 9월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헝가리에 컬러 TV 공장을 설립하였고 92년에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하였음.
- 생산의 국제화 및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200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을 본격화하였음.

■ 대공황 이후 글래스 스티걸법으로 투자은행 업무가 금지된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금융역량 강화,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1934년 글래스 스티걸 법 제정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고 투자은행이 급성장하며 미국 은행산업은 공공기관과 같은 성장정체에 빠졌음.
- 이후 50년대 신용카드 개발, 58년 리볼빙 신용카드 도입, 1973년 CMA 등을 개발하며 소매금융사업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음.
 - 1812년 설립된 씨티은행은 1921년 업계 최초로 복리계좌 상품을 개발하였고, 1928년 무보증 개인대출 상품, 1935년 월 균등상환 상품, 1961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개발하였고 1965년 신용카드사업을 시작하며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였음.
 - 80년대 초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파생상품 트레이딩에 진출하여 비이자수익을

15)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는 같은 해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 및 인력, 그리고 해외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90년대 들어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왔음.

확대하였음.

- 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쟁 심화, 머니 무브¹⁶⁾,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 변화, 비금융회사의 금융산업 진출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외진출이 본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형화가 이루어졌음.

나. 지역다각화 부진과 성장가능성

■ 국내 대형은행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이 높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낮다는 점은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하고, 국내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 국내 은행들의 해외사업비중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사업비중과 수익성 간 강한 인과관계를 본고의 분석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미국과 영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 시장의 성장둔화를 해외사업 확대에 대응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의 대형은행들은 지역다각화를 확대하며 자국시장의 성장둔화를 보완하며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음.

- JPMorganChase와 씨티그룹의 2013년 해외자산 비중은 총자산 대비 36.4%와 44.6%로 2008년 말 32.1%와 42.1%에서 소폭 확대되었음.

- JPMorganChase의 경우 유럽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씨티그룹은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두 은행의 2013년 경영성과의 경우 순이자마진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자산 순이익률은 2009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16) 머니무브는 6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물가 및 금리 상승과 금리변동성 확대, 이자상한제(Regulation Q) 도입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이 크게 줄어들었음. 기업대출 비중은 45년 45%에 달했으나 95년 30%, 2008년 25%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계대출 비중은 45년 28%에서 2009년 75%까지 증가하였음.

○ HSBC의 경우 홍콩 및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표 6> JPMorganChase와 씨티그룹의 경영성과

(단위: %)

연도	JPMorganChase		Citigroup	
	순이자마진	ROA	순이자마진	ROA
2009년	2.43	0.82	3.52	-0.47
2013년	2.85	0.91	3.76	1.07

자료: FDIC.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은행들에 비해서도 지역다각화가 부진한 상황임.

○ 중국 은행들의 경우 정부의 해외진출 장려정책을 배경으로 자원개발회사,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차원에서 해외진출이 시작되었음.

– 중국 공상은행(ICBC)의 경우 2000년 7월 홍콩의 Union Bank of Hong Kong 지분 매입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지점 설립과 지역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며 지역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건설은행(CCB)의 경우 미국, 호주,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일본의 MUFG의 경우 북미, 유럽, 남미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확대하며 일본 사업비중을 2008년 매출액 기준 76%에서 2010년 69%로 축소하였음.

– 2008년 미국 Union Bank 인수, 2010년 RBS PF사업 인수 등 지역 및 사업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 은행들의 경우도 자국 시장 경쟁심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아시아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¹⁷⁾

17) KB금융그룹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산업 전체 자산에서 외국계은행의 비중이 54.8%를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르 은행인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UOB(United Overseas Bank), OCBC(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음.

- UOB(해외사업 비중은 순이익 대비 32.8%)는 2004년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였고 DBS(해외사업비중 순이익 대비 38%)의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등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와 지역다변화를 통한 성장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과 일관된 경영정책 추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지금은 대형화보다는 수익성 제고와 성장여력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들의 자산규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1.38배로 세계 평균 1.41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수익성과 성장여력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역량 확보와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가능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대형화를 추구한 일본 은행들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규모 확대와 수익성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음.¹⁸⁾¹⁹⁾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경우 90년대까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18) Ju-ichi Yamanaka(1992. 6), "Institutional Behavior of Japanese Commercial Banks: An Empirical Perspective",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19) Constantine C. Markides(1995), "Diversification, Refocusing, and Economic Performance", MIT Press, Cambridge MA.

이를 통해 국내 및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음.

-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가 분리된 이후,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신용카드 등 상품개발을 통한 소매금융을 확대하였고 지역다각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였음.
- 영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및 지역다각화를 확대하였음.

■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확보와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경영여건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하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전문성·자율성·일관성 등이 제고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박진근(2009. 5. 25),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손진식·김수진(2011), 「국내 은행의 영업형태와 위험성 및 수익성간의 관계」, BOK 이슈 리뷰, 한국은행.
- 이건희(2005), 「삼성그룹 글로벌 CEO 이견희 회장의 시대별 기업 활동과 경영전략」, 『유라시아연구』 제3권 제1호.
- 정지홍·박기준, 「일본의 원전 세일즈 활동으로 살펴본 원전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CEO Report, KEPCO 경제경영연구원.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2), 『싱가포르 은행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 경영정보리포트.
- Constantine C. Markides(1995), "Diversification, Refocusing, and Economic Performance", MIT Press, Cambridge MA.
- Ju-ichi Yamanaka(1992. 6), "Institutional Behavior of Japanese Commercial Banks: An Empirical Perspective",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 각사 연차보고서.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한국산업은행(2010. 9), 세계 5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경제 이슈.
-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2013. 7. 7), 세계 1000대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
- Thomson Reuters, "Global Syndicated Loans Review", 2013. 1분기.